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가야연맹의 전개

On the Formation of Karakguk as a Small State and League of Kaya States

저자 (Authors)	이종욱 Lee Jong-Wook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7 , 1997.12, 109-139(31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91559
APA Style	이종욱 (1997).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가야연맹의 전개. 서강인문논총, 7, 109-13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0 11: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가야연맹의 전개*

이 중 욱**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加耶聯盟의 형성과 전개 |
| 2. 가락9촌 촌락(추장)사회의 전개 | 5. 맺음말 |
| 3. 駕洛國의 소국형성과 발전 | |

1. 머리말

본고는 가락9촌의 실체와 가락국의 소국형성 그리고 가락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소국연맹의 형성과 그 전개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루는 시기는 가락9촌이 촌락사회단계에 있던 기원전 7세기에서 가락국을 맹주국으로 한 소국연맹이 형성된 후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되기 전인 3세기까지가 된다.

지금까지 가락국의 국가형성과 성장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료의 부족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과거 가야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는 편년이 옳게 되지 않고 있어 가야사 연구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찾을 필요가

* 본 연구는 1997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강대학교 교수(사학)

있다.

필자는 가락국의 국가형성과 소국연맹 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두가지 방법을 택하였다. 하나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나오는 가야의 건국신화를 역사적인 자료로 바꾸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사적인 방법으로 이웃한 사료국의 국가형성과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락국의 국가형성과 성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그 중 『신라국가형성사연구』(1982)에서 이미 촌락(추장)사회-소국-소국연맹-소국병합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형성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사료국을 교역의 창구로 하는 진한연맹의 낙랑군과의 원거리교역체제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작업결과는 소위 삼한지역의 다른 정치세력들에 적용하여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단지 가락국의 경우 신라와 같이 소국연맹내의 다른 소국들을 병합하지는 않았기에 틀린 면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더라도 국가형성과정의 공통점은 본고의 작업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촌락사회단계의 가락9촌의 실체와 가락9촌을 통합하여 형성된 초기국가로서의 소국인 가락국 그리고 가락국을 맹주로 하여 형성된 가야연맹의 실체에 대하여 차례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결과는 많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어 거의 모든 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핍되어 있을 것이나 확실히 일정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얻은 결과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해석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락9촌 촌락(추장)사회의 전개

먼저 『三國遺事』 駕洛國記와 『三國史記』 列傳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을 주목하기로 한다.

A (1)(천지가) 개벽한 후 이 땅에는 아직 邦國의 號가 없었고 君臣의 稱도 없었다. 이에 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

五天干·神鬼干 등 9干이 있었다. 이들은 酋長이다. 백성을 통솔하였는데 대개 1백호, 7만 5천인이었다. 많이를山野에 居하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었다. (『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2) 金庾信은 王京人이다. 그의 12세 祖인 首露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後漢 建武 18년 임인에 龜峰에 올라 駕洛9村을 바라 보고 드디어 그 곳에 이르러 開國하고 국호를 加耶라고 하였다.(『三國史記』 41, 열전 1, 金庾信 상)

위의 사료A1을 보면 9干들은 首露王을 모시고 6加耶 중의 한 나라였던 駕洛國이라는 小國을 형성한 세력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사료A2에는 首露가 龜峰에 올라 9촌을 바라보고 그 곳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수로가 駕洛國을 세우기 이전에 동 지역에는 9촌이 있었고 각 촌에는 干이라 불린 酋長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촌장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9촌을 다스리던 9간을 酋長이라고 기록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에 9촌의 9간들이 9촌을 다스리던 시대를 酋長社會 또는 村長社會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시는 소국형성 이전의 촌락이 단위가 된 정치조직이 편성되어 있었기에 이를 촌락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9촌이 촌락(추장)사회단계에 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필자는 한반도 남쪽지역의 촌락사회의 표지적인 자료로 지식묘를 들어 왔다. 지식묘는 정치적 권력자의 무덤으로 생각되며 당시 그러한 지식묘를 축조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집단이 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식묘는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경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9촌의 촌락사회도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9촌의 촌락사회는 기원전 7세기에 한 번에 형성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사료6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¹⁾ 9촌의 촌락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 9촌이 형성되기 전 언제인가 9촌이 된 것을 생각

1)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p. 32-33.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락9촌의 형성과 발전은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주민의 존재를 주목하기로 한다.

가락9촌을 포함한 한반도 남쪽 지역의 촌락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이주민집단의 존재를 찾아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크게 고조선계와 부여·고구려계의 두 계통의 이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고조선계통의 이주민으로 요동지역에서 성장하였던 고조선의 정치적인 변동과정에 발생한 이주민집단을 들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원전 5세기말부터 시작된 고조선 소국의 요동지역 소국병합과정²⁾에 일부 이주민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당시 이주한 고조선계의 세력집단은 후기형의 비파형동검을 가지고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연장 진개의 침입을 받아 고조선이 서쪽 2천여리의 영토를 상실하고 정치중심을 요동에서 평양 지역으로 옮길 때 발생한 이주민 중 한반도 남쪽으로 온 집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들어서며 준왕을 비롯한 고조선계 이주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만조선시대에 역계경의 이주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또 다른 이주민집단이 발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부여·고구려계통의 이주민들이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십제와 미추홀소국 등의 소국을 형성하였던 사실로 보아 그들 집단 중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한 세력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은 이주민집단은 각기 원래살던 지역에서 축조하던 석판묘, 토광묘 등을 새로운 지역에서든 만든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등의 유물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실은 앞으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계통의 이주민들이 새로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동 지역에 정치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짐작이 간다. 그들 중에는 韓王이 되었던 준왕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계의 이주민집단, 십제를 세운 온조집단, 서라

2)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1993, pp. 141-144.

벌을 세운 혁거세집단, 가락국을 세운 수로집단이 있었다. 그와 같이 후에 소국을 형성한 세력들이 있었으나 그 이전의 이주민들은 소국을 세우기보다 촌락사회에 정치적인 영향을 주어 촌락사회의 정치적인 성장을 불러온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 결과 기원전 7세기무렵 등장하기 시작한 촌락들은 소국형성 직전에는 일정 지역의 촌락들 사이에 연맹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락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가락9촌의 촌장들이 수로를 모시는 장면은 我刀干을 촌락연맹의 장으로 하는 연맹체가 형성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헤아려진다.

다음은 가락9촌의 정치세력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가락9촌의 干들은 각기 하나씩의 촌의 촌장이었으며 그들을 일반적으로 酋長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가락9촌의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가락9촌의 촌장(추장)들은 사로국 형성 이전의 사로6촌의 촌장들과 같은 발전단계의 정치지배세력들이었다고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비교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락9촌의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사로6촌의 각촌에는 씨족집단이 있었고 촌장들은 그와 같은 씨족집단의 장이었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 각 촌에 있던 씨족의 장인 촌장(추장)은 씨족집단의 혈연계보상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보았다.³⁾ 가락9촌의 각 촌의 성원들도 씨족집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가락9촌의 촌장 역시 촌의 씨족장에 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촌장의 지위는 부계가계집단의 계승원리에 의하여 이어졌다고 짐작이 간다. 한편 각 촌의 씨족집단은 한 곳에 몰려 살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촌마다 몇 개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지석묘의 분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촌안의 각 마을에는 씨족이 나뉜 가계집단의 성원들이 거주하였으며 그 안에는 가계집단의 장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촌락사회는 혈연조직에 의하여 움직여 나갔으며, 씨

3) 李鍾旭, 앞의 책, 1982, p. 40.

족장인 촌장과 가계장인 마을의 장들이 높은 계급을 형성하였다고 헤아려진다. 따라서 가락9촌의 촌락사회는 계급사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락9촌의 각촌은 각기 독립된 정치체였다. 단지 수로가 등장하여 9촌을 통합한 가락국을 세우기 전 언제인가부터 9촌의 연맹이 형성된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촌락사회단계의 가락9촌에는 첫째 촌안의 마을, 둘째 촌 전체를 다스리는 2단계의 정치조직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가락9촌은 현재의 면 정도에 해당하고 마을은 현재의 리 정도에 해당한다.

3. 駕洛國의 소국형성과 발전

『三國遺事』駕洛國記에는 가락국의 소국형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가락국기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기로 한다.

B (1)(천지가) 개벽한 후 이 땅에는 아직 邦國의 號가 없었고 君臣의 稱도 없었다. 이에 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 등 9干이 있었다. 이들은 酋長이다. 백성을 통솔하였는데 대개 1백호, 7만 5천인이었다. 많이들 山野에 居하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었다. (2)마침 後漢 世祖 光武帝 建武 18년(42) 壬寅 3월 禊浴日에 사는 곳 북쪽 龜旨(이는 산봉우리의 이름으로 약 열마리의 거북이가 엮드린 모양과 같기에 이름하였다)에서 수상한 소리로 소리높이 부름이 있었다. 무리 200-300명이 여기에 집회하였다. (사람의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 형태는 숨기고 소리만 내어 말하기를 ‘여기 사람이 있느냐?’하였다. 9干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대답하기를 ‘龜旨다’라 하였다. 또 말하였다. ‘皇天이 나에게 명한 것은 이 곳에 어거하여 邦家를 새롭게 하고 君后가 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까닭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위의 한층의 흙을 파고 노래하여 말하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하고 춤을 추어라. 곧 이에 大王을 맞이하여 환희하여 뿔 것이다.’ 9干 등이 그 말과 같이 모두 기뻐하며 歌舞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보니,) 자주색 끈이 하늘로부터 드리워 땅

에 닿았다. 끈의 밑으로 찾아가니 홍보로 쓴 금합이 있었다. 열어 보니 黃金卵 여섯이 있었는데 등글기가 해와 같았다. 여러 사람이 모두 다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수 없이 절했다. 이어 다시 싸서 안아 가지고 我刀의 집으로 돌아와 櫛위에 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일이 지난 翌日 새벽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여니 6개의 알이 모두 童子로 되었다. 용모가 훌륭하였다. 이내 평상에 앉으니 무리들이 축하하여 절하고 극진히 공경하였다. 나날이 자라 십여일이 지나자 신장이 9척으로 殷의 天乙과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漢의 高祖와 같았다. 눈썹이 8彩로 唐의 高와 같았다. 눈의 重瞳은 虞의 舜과 같았다. (3)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首露라 이름하고 혹은 首陵(首陵은 죽은 후의 諡號이다)이라 하였으며 國은 大駕洛이라 칭하였다. 또는 伽耶國이라고도 칭하였다. 곧 6伽耶의 하나다. (4)나머지 5인도 각기 돌아가 5伽耶의 主가 되었다. (5)동은 황산강, 서남은 창해,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伽耶山 그리고 남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 (6)假宮을 짓도록 하여 거처 하였는데 특히 질박하고 검소하여 이영을 자르지 않았고 흙계단은 석자였다. 2년(43) 癸卯 봄정월에 왕이 말하였다. ‘내가 京都를 정하여 두고자 한다.’ 이에 假宮 남쪽 新沓坪(이는 古來의 閑田인데 새로이 경작한 까닭에 이름하였다. 沓은 俗字다)에 타고 가서 4방의 산악을 바라보고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땅이 여뀌잎처럼 협소하다. 그러나 秀異하다. 가히 16羅漢이 머물만하다.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니 7聖이 머물 곳도 진실로 여기에 합치한다. 이 땅에 근거하여 강토를 개척하면 마침내 좋을 것이다.’ 1천 5백보 둘레의 羅城과 宮禁殿宇 및 諸 有司의 屋宇, 武庫·倉庫의 땅을 마련하여 두었다. 일이 끝나자 還宮하였다. 국내의 丁壯·人夫·工匠을 두루 징발하여 그 달 20일 성터를 닦기 시작하여 3월 10일에 이르러 역사를 마쳤다. 그 宮闕과 屋舍는 농사의 틈을 타서 그 해 10월부터 시작하여 甲辰년(44) 2월에 이루었는데 길일을 가려 新宮에 어거하여 萬機를 다스리고 庶務에 근면하였다.(『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사료 B1에는가락국 형성 이전가락9촌의 촌락(추장)사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료 B2에는 수로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사료 B3에는 수로가 6가야의 한나라인가락국왕으로 오른 사실이 나오고 있다. 사료 B4에는 6가야 중가락국 외의 5가야형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사

료 B5에는 6가야의 영역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료 B6에는 경도와 궁궐 등의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위에 제시한 가락국기에 따르면 가락국의 처음 왕으로 되었던 首露는 황금알의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수로가 가락9촌의 선주세력인 9촌장계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수로는 어디서인가 이주하여 온 집단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예는 혁거세의 등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혁거세 역시 이주민집단으로 보아왔다.

수로를 일단 가락9촌 연맹단계의 말기에 어디에선가 이주한 집단으로 보면 가락국 또한 이주민집단에 의하여 건국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로의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허황옥의 등장과 관련된 다음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C 마침 建武 24년(48) 戊申 7월 27일 9千들이 조알할 때에 말씀을 올려 말하였다. ‘대왕께서 강립한 이래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딸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 대궐로 들여 왕비를 삼게 하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이 天命이니 짐의 배필로 왕후를 삼음도 역시 천명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말라.’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하여 빠른 배와 준마를 거느리고 망산도로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에게 거둬 명하여 승점에 나아가게 하였다. 문득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빛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펼친 배가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섬위에서 불을 드니 곧 다투어 땅에 내려 다투어 달려왔다. 신귀간이 보고 궁궐에 달려가 아뢰니 왕이 듣고 기뻐하였다. 곧 9간 등을 보내어 키를 바로 잡고 노를 올려 맞으려 하였다.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 가려 하니 왕후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과 평생에 본디 모르는데 어찌 감히 가볍게 따라 가겠는가.’ 유천간 등이 돌아와 왕후의 말을 전하였다. 왕은 그렇게 여겨 관리들을 거느리고 행차하여 대궐 밑 서남 60보쯤 되는 곳에서 장막의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왕후는 산 밖의 다른 나루에 배를 매고 땅에 올라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입었던 비단 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령에게 바쳤다. 그밖에 시종한 인신이 두사람 있었는데 이름이 申輔와 趙匡이었고 그들의 처 두사람은 慕貞과 慕良이라 불렀으며 노비까지

합하여 20여 명이였다. 가지고 온 錦繡와 綾羅, 의상과 필단, 금은주옥, 보물과 장신구가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왕후가 점점 행재로 다가오니 왕이 나가 맞아 장막으로 함께 들어갔다. 잉신 이하의 무리들은 섬돌 아래로 나아가 뵈고 곧 물러났다. 왕이 관리에게 명하여 잉신부처를 인도케 하며 말하였다. '사람마다 각기 각 방에 안치하고 이하 노비는 한 방에 5-6명 씩 머물게 하라.' 왕은 그들에게 난초로 만든 음료와 좋은 술을 주게 하고 무늬와 채색있는 자리에서 자게 하고, 의복과 필단 및 보화에 이르기까지를 주었다. 군인들을 가려 모아 지키게 하였다. 이에 왕과 왕후는 함께 국침에 있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阿踰陀國 공주인데 성은 許이고 이름은 黃玉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 부왕과 황후가 제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서 어제밤 꿈에 하늘의 상제를 함께 보았는데 말하기를 駕洛國의 왕인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올랐으니 신성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한 새로이 나라에 임하여 아직 배필을 정하지 않았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배필이 되게 하라고 말을 마치고 승천하였는데 상제의 말이 오히려 쟁쟁하다. 너는 이에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 곳을 향하여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蒸棗를 찾고 하늘로 옮겨 蟠桃에 나아가 구하였는데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히 외람되이 용안을 이같이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나면서 자못 성스러워 앞서 공주가 멀리서 이를 것을 알았으므로, 신하들의 납비의 청을 굳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나로서는 다행입니다.' 드디어 歆歡하여 두밤과 하루 낮을 지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 보냈는데 배사공은 15인이었다. 각기 쌀 10석과 베 30필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8월 1일 왕의 수레가 돌아 오는데 왕후와 함께 타고 잉신부처도 나란히 수레를 탔다. 漢에서 산 짐물도 모두 신고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니 시각이 오시가 되고 있었다. 왕후는 이에 궁중에 거처하게 하고 잉신부처와 그들이 거느린 사람들에게는 비어 있는 두 집을 주어 나누어 들게 하였다. 그 밖의 종자에게는 20여 간이 되는 빈관 한 채를 주어 사람수를 참작하여 나누어 안치하고 나날이 주는 것을 풍부하고 넉넉하게 하였다. 신고 온 진기한 물건은 내고에 간직하고 왕후의 4사비용으로 삼았다. (『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위의 가락국기의 기록을 보면 허황옥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잉신, 노비를 거느리고 집단으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집단은 수로집단과

세력동맹을 맺어 가락국의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수로의 부인이 되었던 허황옥의 원래 거주지가 어디였는지 궁금하다. 가락국기의 기록에 따르면 허황옥은 阿踰陁國의 공주였다고 나오고 있다. 수로의 왕비가 되었던 허황옥이 실제로 인도의 阿踰陁國으로부터 이주한 세력인지는 알 수 없다. 확인할 길은 없으나 허황옥이 아유타국의 공주였다는 내용은 후일 추가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여기서는 허황옥집단의 출신지와 관련시켜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漢의 잡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로 한다. 그와 같은 漢의 잡물을 가지고 이주한 것은 허황옥의 집단이 漢과 관계가 있지 않았나 짐작케 한다. 허황옥이 漢人이었거나 漢人이 아니었으나 漢郡縣 출신의 또 다른 집단으로 한의 문물과 문화를 익힌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수로와 허황옥으로 표현된 가락국의 지배세력들이 이주민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가락국기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주민집단이 탈해를 주목할 수 있다. 탈해는 琯夏國 舍達王의 부인이 낳은 알이 사람으로 되어 태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탈해는 수로가 가락국을 건국한 때에 나타나 왕위를 빼앗으려 하다 제주다툼에서 패하여 ‘中朝來泊之水道’를 따라 계림지역으로 쫓긴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탈해는 倭國 동북 1천리에 있는 多婆那國 소생으로 알로 태어났는데 상서롭지 않게 여긴 왕이 버리게하여 왕비가 바다로 띄워 보내 금관국의 해변에 이르렀으나 취하지 아니하여 혁거세 39년(기원전 19) 아진포구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⁴⁾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가락국에는 수로와 허황옥 외에 또 다른 이주민들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탈해는 수로집단이 가락국을 형성한 후에 도착하였으나 수로집단에 의하여 밀려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가락국형성기에 여러 차례의 이주민집단이 가락국지역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이주민집단들이 모두 가락국의 지배세력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은 정착하여 가락국을 세웠고 어떤 세력은

4)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즉위조.

왕비를 배출하며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았고 또 어떤 세력은 먼저 정착한 세력에 의하여 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남쪽지역의 초기국가형성 시기에 여러 차례 이주민들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필자는 그와 같은 초기국가형성기의 이주민집단의 계통이 크게 둘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고조선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부여·고구려계통의 이주민이라고 본다. 먼저 고조선 계통의 이주민은 다시 몇 차례로 나누어 이주한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원전 4세기말·3세기초 연장 진개의 침입을 받아 고조선이 그 서쪽 2천여리의 땅을 상실하고 나라의 중심을 요동의 조선에서 평양으로 옮긴 때 발생한 이주민집단으로 개중에는 한반도 가락9촌이나 사료6촌과 같은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이주한 세력이 있었다고 본다. 둘째, 위만이 고조선의 왕위를 장악하며 준왕과 그의 좌우궁인들이 바다를 통하여 남쪽 韓地로 이주한 사실로 미루어 고조선이 망하며 이주한 또 다른 계통의 조선계 이주민집단을 들 수 있다. 셋째, 위만조선시대에 조선상 역계경이 2천여호를 거느리고 진국으로 이주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위만조선 시대의 고조선계통의 이주민집단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넷째, 낙랑군·진번군·임둔군 등의 군현이 설치되며 발생한 이주민 집단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여·고구려계통의 이주민집단은 고조선의 요동상실 시기, 중국의 진한 교체기, 위만조선시기 등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은 이주민집단 중 수로집단과 허황옥집단이 가락국의 왕과 왕비를 배출하는 최고 지배세력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 이주민집단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등 각 방면에 걸쳐 9간층보다는 새롭고 발달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 이주민집단은 그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9간으로 표현된 선주세력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여 9개의 촌을 통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여 가락국을 만들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가락국기에는 9간들의 추대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9촌을 통합한 것처럼 나오고 있으나 그 실체는 수로집단을 대표로 하는 이주민집단의 각종 실력에 의하여 가락국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로, 탈해, 허황옥 등의 이주민집단이 언제 발생한 이주민집단이고 어떠한 계통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수로집단의 이주가 가장 앞섰고, 이어 탈해집단이 이주하였고 보다 후에 허황옥으로 표현된 집단의 이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수로는 후한 광무 건무 18년(42)에 이주하여 왕이 되었고, 탈해도 가락국에 같은 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허황옥은 건무 24년(48)에 가락국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탈해왕의 즉위조를 보면 탈해는 혁거세 거서간 39년인 기원전 19년에 금관국을 거쳐 아진포구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 駕洛國記의 기록과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가락국기의 기록이 신화·설화화 하는 과정에 연대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하여 『三國史記』 탈해왕 즉위조의 연대가 맞는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로, 탈해, 허황옥의 이주시기와 가락국의 국가형성 시기에 대하여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락국의 형성년대는 언제였을까. 어느 누구도 이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한반도 남부에서 진행되었던 초기국가로서 소국의 국가형성의 대체를 파악하여 가락국의 소국형성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할 뿐이다. 李丙燾는 가락국의 부족국가로서의 기원은 駕洛國記에 나오는 기원후 42년보다 더 오래되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수로의 시대는 중국의 3국시대나 후한말 경으로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였다.⁵⁾ 金哲堧은 수로의 가락국 건국이 252년 전후하여 있었다고 하였다.⁶⁾ 千寬宇는 수로의 김해 도착시기를 167년에서 184년 사이와 가까운 162년으로 보고 있다.⁷⁾ 최근 金泰植은 가락국의 소국형성시기의 상한을 42년으로 보고 하한을 늦어도 2세기 후반 이전으로 보며 대체로 2세기 전반 무렵으로 보았다.⁸⁾ 수로에 의한 가락국의 형성시기에 대한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

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1976, pp. 306-310.

6) 金哲堧,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韓國古代社會研究』, 1976, pp. 104-107.

7) 千寬宇, 『加耶史研究』, 1991, p. 16.

8) 金泰植, 『加耶聯盟史』, 1993, pp. 42-58.

정이다. 이들의 가락국 건국시기에 대한 견해는 2세기에서 3세기까지로 본다는 특성이 있다. 그에 비하여 李賢惠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 기원후 1세기 초엽에 수로집단이 김해지역의 선주 소집단들을 통합하여 狗邪國 즉 가락국을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⁹⁾ 필자는 사로국·가락국과 같은 소국들이 기원전 2세기,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중에는 소국을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¹⁰⁾ 최근 白承忠은 삼한소국의 형성시기를 최소한 기원전 2세기초라고 한다며 가야 소국의 형성시기를 기원전 2세기로 보았다.¹¹⁾

필자는 혁거세집단이 사로 6촌을 통합하여 斯盧國(徐那伐)이라고 하는 소국을 형성한 시기가 기원전 2세기말경이라고 보아 왔다.¹²⁾ 사로국은 한반도 남부에서 성장하였던 소국들 중의 한 나라이며 가락국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국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가락국은 위만조선시대의 ‘眞番旁衆國’ 중의 한 나라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위만조선시대인 기원전 2세기 또는 그 이전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수로집단이 어떠한 지역출신이며 또 언제 이주한 집단인가에 따라 가락국의 건국년대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허황옥이 가지고 왔다는 漢의 잡물들을 주목하면 허황옥은 漢이 들어선 후의 이주한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만조선시대에 漢의 잡물을 가지고 온 이주민집단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어쩌면 낙랑군을 비롯한 한4군이 설치된 후 그러한 이주민이 가락국 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여기서 김해와 그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는 다호리유적 등지의 漢계통의 유물들의 주인공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타당하다면 허황옥집단은 낙랑군 설치 이후에 이주한 세력이고, 수로집단은 그 이전 위만조선시대의 이주민이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이 망하며 발생하였던 이주민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수로집단은 고조선 석관묘계통의 이주민들이고

9)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1984, p. 93.

10) 李鍾旭, 『韓國 初期國家的 政治發展段階와 政治形態』,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1993, p. 25.

11) 白承忠, 『加耶 地域聯盟史研究』(박사학위논문), 1995, pp. 77-84.

12) 李鍾旭, 앞의 책, 1982, p.52.

허황옥은 토광묘계통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이주민집단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는 있으나 현재 우리는 그 최초의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는데 가락국의 형성년대를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에는 기원전 42년 6개의 황금란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알들이 동자로 되었는데 수로가 먼저 나왔고 같은 달 보름에 大駕洛(伽耶國)의 왕위에 올랐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들도 각기 돌아가 5伽耶의 주가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6란설화를 가야연맹의 형성을 뜻하는 기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나,¹³⁾ 필자는 이를 가야의 소국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유사한 이주민집단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을 설화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면 가락국을 비롯한 6가야는 기원전 2세기 경 언제인가 거의 동시에 형성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들 6가야소국들은 언어를 공유하고 거의 비슷한 종교, 사회·정치체도를 가졌으며 비슷한 수준의 농업과 교역활동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가락국의 형성과 京都의 설치에 대한 문제를 보기로 한다. 수로는 가락국의 왕이 된 후 京都를 설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사료A6). 가락국의 왕이 된 수로는 둘레 1,500보의 羅城과 그 안에 궁궐과 전각, 관청, 무기고, 창고를 지어 44년 2월에 신궁으로 들어가 萬機를 다스리고 庶務에 근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가락국의 京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로왕이 설치한 정도에는 일반 백성의 거주지 또는 일반 귀족의 거주지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당시의 정도는 왕의 궁전과 관청 그리고 무기고 및 일반 창고가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도가 왕의 거처이고 동시에 왕족을 보호하는 시설이었으며 국정을 처리하는 정청이 들어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도는 수로를 받들어 왕으로 삼았던 9촌장들의 거처와는 관계가 없다. 수로는 별도로 그의 거처이며 가락국의 정치중심지인 정도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가락국의 정도는 신라왕경의 정치중심구

13) 白承忠, 『加耶 地域聯盟史研究』(박사학위논문), 1995, p. 48.

역이 발전하여 이루어진 왕도와 그 정치적 성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락국의 통치조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중앙정부조직에 대하여 주목하기로 한다. 그 중 수로왕을 비롯한 왕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락국이라는 하나의 소국은 수로를 왕으로 세움으로 성립되었다. 수로라는 왕은 하늘에서 황금란의 모습으로 가락9촌 지역에 등장한 것으로 신화화되었다. 이는 수로의 탄생을 신성한 것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수로의 탄생이 신성한 것으로 된 것은 한 걸음 나아가 가락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수로는 가락국의 시조로 받들어졌으며 시조묘에 모셔져 후대의 왕들이 그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그 후손들의 계보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가락국 역사의 뿌리를 마련한 것이며 조상계보에 대한 파악은 왕실의 유지장치가 되었던 것을 뜻한다.

수로를 비롯한 가락국의 왕들은 자신과 왕실을 위하여 또는 국민을 위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고 전쟁을 치르며 공공사업을 주관하고 조상묘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수로를 비롯한 가락국의 왕들은 9간들이 다스리던 9촌의 세력들에 대한 직접지배는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 결과 왕들은 가락국 전체의 통치와 관련된 신분질서의 유지, 법의 시행, 정책결정과 의견조정 등의 일을 하였다. 가락국의 왕들은 9촌장과 촌락민들과는 별도의 거주지인 정도에 머물며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

가락국에는 나름대로 정부조직이 편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부조직의 운용은 수로나 허황옥으로 대표되는 왕실세력집단만으로는 불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과거 촌락사회 시대의 촌의 지배세력들을 정부의 관리로 등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시켜 가락국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D (1)마침내 我刀를 我躬으로, 汝刀를 汝譜로, 彼刀를 彼藏으로, 五方(刀)

은 棼常으로 고쳤다. 留水와 留天의 이름은 윗글자는 바꾸지 않고 아래 글자만 留功과 留德으로 고쳤다. 神天은 神道로 고치고, 五天은 棼能으로 고치고, 神鬼는 음은 바꾸지 않고 訓을 臣貴로 바꾸었다. (2)신라의 직관 제도를 취하여 角干, 阿叱干, 級干的 관위를 설치하고 그 밑의 관료들은 주나라와 한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나누어 정했다. 이는 옛제도를 혁신하고 새 것을 취하여 관직을 설치하고 나눈 방법이다. 이로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정돈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그 다스림은 야단스럽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정치는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하물며 왕후와 함께 살게 된 것은 비유하자면 하늘에 대하여 땅이 있고 해에 대하여 달이 있는 것과 같다. 그 공은 우임금의 아내가 하나라를 돕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의 가문을 일으킨 것과 같다. (『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위의 가락국기에 나오는 기록은 가락국의 설치 후 중앙정부의 관직 설치와 그러한 관직에 9촌장들을 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기록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가락국의 왕이 되었던 수로와 그 집단은 가락국 전체를 다스릴 관리들을 모두 배출할 수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과거 촌락사회시대 이래 촌락의 지배세력들을 가락국 정부의 관리로 등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허황옥으로 대표되는 왕비를 배출한 집안의 성원들도 중앙정부의 관직을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가락국의 정부조직은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신라의 중앙정부조직은 일시에 편제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점차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¹⁴⁾ 따라서 가락국에서 신라의 관제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가락국건국 초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락국에서 신라의 관직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적어도 신라가 관직제도를 어느 정도 설치한 후의 일로 가락국기의 기록은 후대에 있었던 사실을 건국 초기의 사실로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가락국의 정치조직은 적어도 3단계의 조직으로 편성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촌락사회단계에 9촌의 각 촌을 다스리던 조직과 촌안의 여러 마을

14) 李鍾旭, 앞의 책, 1982, pp. 196-221.

을 다스리던 조직의 2단계 조직이 편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⁵⁾ 거기에 더하여 9촌을 통합한 가락국 전체를 다스리던 통치조직을 들 수 있다.¹⁶⁾ 이러한 정치조직의 편제는 원래 있던 조직의 한단계 위에 새로운 상급 정치조직을 편성한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종래부터 있던 조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조직은 하급의 정치조직으로 그 후에도 남게 되었다.

여기서 가락국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가락국이 가락9촌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가락국 형성 이후에 9촌은 가락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사정은 사로6촌이 사로국형성 이후에는 사로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되었고 6부로 편제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가락9촌이 가락국의 9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가락9촌의 각촌에는 다시 몇 개씩의 마을이 있어 촌 밑의 하급 지방행정구역이 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락국의 경도는 정치중심구역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9촌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그러한 경도는 단순히 정치중심구역 뿐아니라 경제, 종교, 신분적 중심지도 되었다.

가락국의 신분제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락국 최고의 신분은 왕을 배출한 수로왕과 그 후손으로 왕을 배출한 일정 가계의 성원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수로의 왕비가 되었던 허황옥집단을 들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허황옥으로 표현된 집단은 여자만 있던 집단이 아니고 수로집단과 세력동맹을 맺을 수 있던 가계집단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수로의 후손집단으로 왕을 배출한 가계의 성원과 왕비를 배출한 가계의 성원들이 왕실세력으로 최고의 신분층을 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들 최고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9촌장계통의 주민들과는 혈연적으로 단절이 되었으며 그 결과 한층 강력하고 행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가락국의 왕실세력들은 경도에 거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 왕실세력들은 시간이

15) 李鍾旭, 「韓國 初期國家의 政治發展段階와 政治形態」,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1993, pp. 37-42.

16) 李鍾旭, 앞의 논문, 1993, pp. 42-50.

지나며 왕에서 떨어진 가계의 성원들은 점차 신분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세력 밑에는 9촌장계통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9촌의 지방세력으로 있었으며 가락국 정부의 관직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들은 주로 9촌의 중심이 되는 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밑에는 촌안의 마을에 세력집단이 또 다른 신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짐작이 간다. 그 밑에 일반 백성이 있었는데 이들 백성들은 가락국 왕의 신민들이 되었다. 한편 백성들보다 낮은 신분으로는 허황옥이 거느렸던 노비의 존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駕洛國記의 기록(사료B1)에는 가락9촌의 촌장들이 수로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을 때 1백호, 7만 5천인을 거느렸던 것으로 나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락국 형성 당시의 호구를 추측할 단서를 제공하여 주는 기록이나 그 자체 그대로 믿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나오는 인구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3한의 國들 중 마한에는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弁辰에는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라고 되어 있다. 가락국은 『三國志』에서 말하는 변한지역에 해당하고 일찍이 정치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기에 그 인구는 많은 편으로 四五千家 정도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러한 인구자료는 3세기 후반의 상황을 말하여 줄 가능성이 크기에 가락국의 초기에는 그 인구가 적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원전 2세기에 가락국이 형성되었다면 당시 가락국의 인구는 『삼국지』에 나오는 것보다 반 정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⁷⁾ 이 경우 수로왕이 가락9촌을 통합하였을 때 인구는 2천에서 2천 5백가 정도 되었을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인구는 1만에서 1만 2천 5백명 정도였던 것은 아닐까 짐작이 간다.

이제 가락국의 소국형성요인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소국형성

17) 李鍾旭, 앞의 책, 1982, p. 26에서 사로국의 국가형성기에는 3세기 인구의 반정도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가락국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의 기반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가락국은 가락9촌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다. 자연 가락9촌이 가락국의 형성기반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락9촌은 추장이라고 불리는 촌장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사회였다. 그와 같은 촌락에는 촌장이라고 하는 정치지배자가 존재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 촌장들은 가락국 형성 이전 언제부터인가 촌락연맹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가락9촌을 다스리던 단일 정치지배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가락9촌연맹은 소국형성 직전 단계까지 정치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수로집단이 등장하여 가락9촌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정치조직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락국을 형성한 중심세력인 수로집단은 이주민집단이었다. 수로와 허황옥으로 대표되는 그들 이주민집단은 9촌장들 위에 한단계 높은 신분층을 이루었으며 왕과 왕비를 배출하여 나가게 되었다. 가락국을 세운 이주민집단은 각종 정보를 소유한 집단이었고 그와 같은 정보는 소국을 형성할 실력을 제공하여 주었다. 특히 수로라고 하는 유능한 지도자 아래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일정한 인적자원을 갖춘 이주민집단은 9촌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경도에 거주하였으며 정치, 군사조직을 유지하여 나갔다. 가락국을 형성한 이주민 세력집단은 당시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문화적 역량이 소국을 형성할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가락국의 주변에는 駕洛國記에 나오는 것과 같이 거의 동시에 또 다른 5개의 소국들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가락국을 포함하여 6가야만이 형성되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가락국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소국을 형성한 나라들이 가락국 주변에 5개가 더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6개 가야 소국의 밖에는 또 다른 소국들이 형성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6가야의 소국들은 소국이상의 정치적인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당시 가야지역의 소국들은 다른 소국을 통합하여 보다 큰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4. 加耶聯盟의 형성과 전개

『三國遺事』駕洛國記에는 6가야 중의 한 나라였던 가락국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가락국 이외에 5가야가 형성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6가야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6가야의 영역은 동은 황산강, 서남은 창해, 서북은 지리산이고 동북은 가야산이고 남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三國遺事』五伽耶조를 볼 수 있다.

五伽耶(駕洛記贊에 말한 것을 보면 한가닥 자주빛 끈이 내려와 6개의 등근 알을 내려 주었는데 다섯은 각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있었는데 곧 하나는 수로왕이 되었다. 나머지 다섯도 각기 5가야의 주가 되었다. 지금 금관이 다섯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本朝史略에 금관을 함께 넣고 昌寧을 함부로 넣은 것은 잘못이다)

阿羅(一作耶)伽耶(今含安), 古寧伽耶(今威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이다. 또 本朝史略에 말하기를 태조 천복 5년 경자년(940)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으니 1은 金官(金海府가 되었다), 2는 古寧(加利縣이 되었다), 3은 非火(지금의 昌寧인데 高寧의 잘못인 듯하다), 나머지 둘은 阿羅와 星山이다(위와 같다. 星山은 혹은 碧珍伽耶라 한다). (『三國遺事』 1, 紀異 2, 五伽耶)

한편 중국측 기록인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조에는 弁辰 또는 弁자가 붙은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弁辰半路國, 弁樂奴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弁辰甘路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弁辰瀆盧國 등의 13개의 국명이 나오고 있다. 弁韓과 辰韓에는 각기 12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국으로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 중 弁軍彌國은 진한의 軍彌國이 중복된 것으로 원래 진한의 국명이라고 보면 변한에 12국이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러면 『三國遺事』 駕洛國記 등에 나오는 6가야와 『三國志』 韓조에 나오는 弁辰 12국은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일까. 필자는 『三國志』 韓조의 기록은 소위 3한의 정치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三國志』 韓조의 기록은 낙랑군·대방군과 변진 12국으로 나오는 세력 사이의 원거리교역 관계를 중심으로 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三國志』 韓조의 내용은 소위 3한의 소국형성이나 정치적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료는 아니다. 단지 낙랑군·대방군과 소위 변진의 관계에 대한 기록 속에서 변진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일부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하여 가락국기의 기록은 가락국의 소국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三國志』 韓조에 나오는 12국이 과연 3세기 후반 『三國志』가 저술될 때 소국연맹을 형성하고 있던 소국들이었는지도 생각할 문제이다. 그러한 사정은 마한지역에서는 백제가 진한지역에서는 신라가 이미 소국들을 병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명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한과 진한조에 나오는 國들 중에는 이미 백제와 사로국에게 병합된 소국들이 있었으나 중국인들의 원거리교역의 대상을 밝힐 필요에서 기록된 국들이 있었다. 가야연맹은 원래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나오는 것과 같이 6가야가 연맹을 형성하였고 가락국이 맹주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지역에서 소국연맹이 형성될 때 구태여 12개의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락국기에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6개의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야지역의 소국들이 형성하였던 소국연맹체를 弁辰 또는 弁韓이라고 하기보다 가야연맹이라고 불러 두고자 한다.

그와 같은 가야연맹의 형성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원전 108년 낙랑군이 설치된후 낙랑군에 온 ‘內郡 賈人’들에 의하여 낙랑군과 가야의 소국들 사이에 원거리교역이 행하여지는 중에 가야지역의 소국들을 묶어 하나의 교역망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락국은 그와 같은 원거리교역의 창구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가락국이 위치한 장소는 낙동강의 하구로서 낙동강의 중하류 지역에서 소국을 형성하였던 가야의 여러 소국들이 원거리교역을

하는 창구로 삼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고고학적인 면에서 기원전 1세기 가야의 소국들과 낙랑군 사이에 원거리 교역이 행하여진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가야지역 소국들의 지배자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들을 낙랑군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였다. 그 결과 前漢대의 유물들이 가야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다. 다호리유적에서 발굴된 前漢대의 유물들은 좋은 예가 된다. 낙랑군을 통하여 가야의 소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은 원가가 얼마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들은 가야의 지배세력들이 정치적·사회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위세품(prestige-goods)들이었다. 동경이나 동탁과 같은 물건들은 원래 중국에서는 위세품은 아니었다고 여겨지나 가야지역에 수입된 후 실용품으로 사용되기보다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낙랑을 통하여 수입된 대부분의 물건들은 그와 같이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대신 가야의 소국들은 낙랑군에 철, 포 등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물건을 훨씬 많이 수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역은 원거리교역 또는 위세품교역체제(prestige-goods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러한 원거리교역은 우리들이 보면 불평등한 교역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가야소국의 지배세력들은 그와 같은 교역을 통하여 구한 물건들로 정치적인 권위를 백성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에 낙랑과의 교역을 계속한 것을 볼 수 있다. 『三國志』 弁辰조에는 '(弁辰의) 國들은 철을 생산하였는데, 韓·濊·倭에서 모두 와서 가져간다. 여러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모두 철을 사용한다. 마치 중국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또 2군(낙랑군·대방군)에 공급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기원전 1세기에는 주로 낙랑에 온 '內郡賈人' 즉 중국본토에서 온 상인들이 한반도 남쪽 지역에 왕래하며 교역을 하였는데 그 중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은 가락국은 주요 교역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 필자는 이미 이와 같은 원거리교역체제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앞의 책, 1982, pp. 100-104) 당시 진한연맹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삼한지역의 다른 소국연맹체인 변한과 마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틀림없다.

낙랑에서 온 중국인 상인들은 가야의 정치세력들이 위세품을 비롯하여 선진문명의 산물들을 주로 가지고 왔다. 그러한 물건들은 부피도 크지 않았고 원가도 얼마되지 않았으나 가야를 비롯한 소위 3한지역의 정치세력들이 즐겨 찾던 물건들이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에 그와 같은 원거리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가야지역에서 교역의 창구가 되었던 가락국이 가야 여러 소국들을 대표하여 중간무역을 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락국은 원거리 교역의 창구가 되어 중간무역의 이익을 차지한 것도 알 수 있다. 가락국은 철제 무기나 농기구도 먼저 장악하고 나아가 그러한 물건들의 제조기술이나 농업기술도 알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가야의 다른 소국들보다 먼저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한 가락국은 가야지역 소국들의 맹주국이 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야라는 소국연맹이 형성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가야지역의 소국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소국연맹의 실체에 대하여 잠시 보기로 한다. 소국연맹의 맹주국이 되었던 가락국과 가야연맹의 다른 소국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소국연맹의 소국들은 맹주국의 부용국이 되거나 속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은 마한과 백제 사이에 또는 고구려와 비류국이라는 소국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¹⁹⁾ 여기서 그와 같은 부용국과 속국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마한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백제는 마한연맹의 한 소국으로 있을 때인 온조왕 10년에 神鹿을 잡아 마한에 보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맹주국에 공납을 바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가 하면 온조왕 13년에는 漢山 아래에 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읍긴 후 사신을 마한에 보내어 遷都한다는 사실을 고하고 이듬해에 천도를 하였다. 그리고 온조왕 24년에는 웅천책을 만드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나라가 완전해지고 백성이 모이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여 크게 성지를 만들고 마한의 강역을 침범하니 의리에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이에 온조왕은 부끄러이 여겨 드디어 책을 헐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백제와 마한의 맹주국과의 관계는 소국

19) 李鍾旭, 앞의 논문,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1993, pp. 26-29.

연맹단계 맹주국과 연맹의 소국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연맹의 소국들은 맹주국에 신록을 바치는 등 사대의 예를 바치고 공납을 하며 천도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마한의 맹주국에서 백제에 어떤 구체적인 통치력을 행사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계는 맹주국인 가락국과 가야연맹의 다른 소국들 사이에도 있었던 관계라고 생각된다.

가야연맹 안의 일부 소국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전개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야연맹에 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포상8국이 가야의 맹주국이었다고 생각되는 가라(가락국)를 공격하여 6천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았던 것도 소국연맹 안에 또 다른 소국연맹이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국연맹 속에서 또 다른 소규모의 소국연맹관계가 전개된 것을 의미한다.

소국연맹안에서 찾아지는 소규모의 소국연맹은 포상8국이 가라를 공격한 것을 보아 군사적 동맹을 위한 소국연맹일 수도 있다. 이는 소국연맹의 여러 소국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그 때문에 소국연맹이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야연맹은 원거리교역을 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소국연맹이기에 그 결속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국들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면 소국연맹은 나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가야연맹은 연맹을 형성한 소국들이 후일 신라에 병합될 때까지 결속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가야연맹의 정치적·군사적 활동에 대하여 주목하기로 한다. 가야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료를 찾을 수 없기에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나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먼저 가야연맹은 시간이 지나며 신라와의 관계가 변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에 낙랑의 상인들은 바다의 길을 따라 배를 타고 왕래하며 소위 3한지역의 여러 세력들과 원거리교역을 하였다. 낙랑에 온 중국본토의 상인들은 가락국에도 들렀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사정은 『三國遺事』駕洛國記에 수로와 탈해가 재주를 겨누어 탈해가 패배하자 가락국을 떠나는데

‘中朝來泊之水道’로 갔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온 배들은 가락국에 와서 머무는 곳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기원전 1세기에 중국의 배들이 소위 3한지역에 활발하게 왕래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 기원후 1세기초부터는 중국의 상인들이 중국의 배를 가지고 3한지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원거리교역을 원하게 된 3한의 세력들이 오히려 낙랑의 치소인 조선현에 가서 몇대에 걸쳐 머물며 원거리교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로 『三國志』 韓조에 인용된 『魏略』의 기록에 廉斯鏹에 대한 기록이 있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원후 1세기에 이르면 중국의 상인들이 가락국에 온 것이 아니라 가락국의 세력들이 낙랑군에 가서 원거리교역을 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교역을 위하여 사람을 낙랑에 보내는 원거리교역을 담당할 소국들은 많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원거리교역을 통하여 가야연맹의 맹주국이 되었던 가락국이 1세기 이후에도 위세품교역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가야연맹의 맹주국이었던 가락국은 군사적·경제적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기록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따르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야와 신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탈해왕 21년(77)에는 아찬 吉門과 加耶兵이 黃山津口에서 전투를 벌여 1천여 급을 베었다. 파사왕 8년 8월에 영을 내리는 중에 서쪽으로 백제와 이웃하고 남으로 가야와 접하였는데 덕은 능히 편안케 하지 못하였고 위엄은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성루를 수리해서 침범에 대비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달에 加召와 馬頭의 2성을 쌓았다. 파사왕 15년 2월에 가야의 적이 마두성을 포위하여 아찬 吉元을 보내어 기병 1천으로 쳐서 물리쳤다. 파사왕 17년에는 加耶人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므로 加城主 張世를 보내어 막게 하였는데 적에게 살해되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적을 물리치니 포로가 매우 많았다. 파사왕 18년에는 군대를 일으켜

가야를 치고자 하였으나 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청죄하였으므로 멈추었다. 지마왕 4년(115)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親征하였는데 步騎를 거느리고 黃山河를 건너니 가야인들이 군사를 수풀속에 숨겨두고 기다렸다. 왕이 모르고 바로 나가자 복병이 일어나 몇겹으로 에워싸니 왕이 군사를 격려하여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지마왕 5년 8월에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범케 하고 왕은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따르니 가야가 성을 지켰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려 돌아 왔다.

『三國史記』에는 신라와 가야의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위와 같이 나오고 있다. 위의 기록을 통하여 신라와 가야는 77년에서 116년까지 사이 즉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전투 장소는 신라와 가야 사이였으며 황산강인 낙동강 유역도 전투지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잘 알 수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야연맹의 맹주국인 가락국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신라와 전쟁을 한 가야가 가락국이라고 한다면 당시 가락국은 가야연맹의 맹주국이 된지 오래됐고 그 과정에 군사적·경제적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신라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라는 사로국으로 사로국도 가야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북부의 소국들을 하나의 연맹으로 만들어 그 맹주국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로국과 가락국이라고 하는 두 맹주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가락국과 사로국은 전투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파사왕 23년(102)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를 가지고 분쟁을 벌일 때 파사왕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로왕에게 그 처리를 부탁한 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다소 설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일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 신라와 가야 사이에 전쟁이 늘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신라와 사로국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하여 어쩌면 2세기 초에는 가락국의 세력이 사로국보다 강하였던 것은 아

니었나 짐작이 간다.

가야와 신라 사이의 관계는 3세기 초에 이르면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나해왕 6년(201) 2월에 가야가 화친을 청했다. 나해왕 14년(209) 7월에 浦上八國이 加羅를 침범할 것을 꾀하였으므로 加羅 王子가 와서 구원을 청했다. 이에 왕은 태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병을 거느리고 가서 구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8국의 장군을 격살하고 포로가 되었던 6천인을 빼앗아 돌려 보냈다. 나해왕 17년(212)에는 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 나해왕대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3세기 초에 가야와 신라의 관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 화해를 청하였고 가야의 왕자를 보내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왕자를 인질로 신라에 보내고 있다. 이는 3세기에 이르러 가야의 국력이 신라보다 약한 것을 나타내준다. 실제로 3세기에 이르면 신라는 진한연맹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발전하였는데 가야는 소국연맹단계에 있어 국력이 신라에 미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야는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는가 하면 왕자를 인질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가야는 3세기까지 소국연맹에 머물고 더 이상의 정치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가야연맹의 소국들은 대체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었나 짐작이 간다. 그러한 사정은 가야 소국들이 위치하였던 지역에서 찾아지는 고분들의 규모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가야의 소국들 사이에 완전하게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소국이 다른 소국을 병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의 불균형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가야의 소국들 사이에 전쟁도 있고 포로를 잡아가지도 하였으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국이 다른 소국을 완전히 병합하여 그 왕을 제거하고 통합을 이루어 피병합국을 직접 통치할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침략을 받은 소국의 지배세력들은 전쟁에서

패하면 다른 지역으로 아주 이주하거나 잠시 피하였다가 침략세력이 물러나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가야의 소국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왜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가야가 끝까지 소국연맹체를 유지한 것은 소국들이 일찌기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 소국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예컨대 포상8국의 침략을 받아 6천 명이 포로로 잡혔던 가라는 멸망의 위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라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浦上八國의 침략을 물리치고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을 되찾은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가야의 소국들은 원거리교역을 통하여 비교적 완만한 연맹체를 형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연맹안의 소국들 사이에 전쟁도 벌어졌다. 그런데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외교적인 활동을 잘 벌여 외국세력의 힘을 빌어 병합과 피병합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야는 일찌기 신라에 화친을 청하고 인질을 파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백제, 왜까지 끌어들이는 국제관계를 전개한 것으로 보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외교술에 능한 소국들로 이루어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가야의 소국들은 각기 원거리교역을 수행하며 경제적·군사적 실력을 키웠고 맹주국이 위세품이나 무기 또는 농기구를 독점하지도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낙랑군이나 대방군과 같은 중군군현을 통하여 선진문명에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각 소국이 거의 비슷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과정에 각 소국은 철이나 포와 같은 수출품도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락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가야연맹의 맹주국의 지위는 한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야의 여러 소국들을 비교하면 가락국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교역의 창구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에 『三國志』의 편찬시까지 가락국이 가야 소국들의 원거리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맹주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소국연맹단체를 넘어서서 연맹의 소국들을 거의 병합한

상황에 있었다.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크게 강화된 신라에 대적하는 과정에 가야는 더욱 그 세력을 성장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가야는 군사적·정치적 실력보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주변세력들의 침략을 막아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가락9촌, 가락국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가락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가야연맹의 형성과 그 전개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三國遺事』 駕洛國記와 『三國史記』 열전 金庾信전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수로왕이 등장하기 전 가락지역에는 9촌이 있었고 각 촌에는 촌장이 있었으며 이들 촌장을 ‘酋長’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초기국가로서 소국이 형성되기 이전 가락지역의 정치체를 촌락(촌장 또는 추장)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촌락사회로서 가락9촌은 대체로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까지 존속하였다. 소국형성 이전 이 같은 촌락사회에는 고조선이나 부여·고구려계통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점차 정치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촌에는 몇개의 마을들이 나뉘어 있었고 촌안에는 하나의 씨족집단이 살았고 마을에는 씨족이 나뉜 가계집단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각촌의 촌장과 마을의 장은 높은 계급을 이루어 촌락사회는 계급사회를 이루었다. 촌락사회에는 마을과 각촌을 다스리는 2단계의 정치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기원전 2세기 가락국이 형성되기 이전 언제부터인가 9촌 사이에는 연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 남쪽지역의 초기국가형성에 대한 대세를 상기하며 『三國遺事』 駕洛國記의 건국신화를 역사적인 자료로 바꾸면 가락국 형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가락국의 건국세력인 수로집단과 수로의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허황옥집단은 모두 이주민집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탈

해를 비롯한 여러 이주민집단이 가락국지역을 거쳐갔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은 이주민집단 중 수로와 허황옥으로 나오는 집단이 가락9촌을 통합한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수로와 허황옥집단은 어느 계통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이주민 이동의 대세상 고조선이나 부여·고구려계통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들 가락국 건국집단은 가락9촌장 위에 군림하여 초기국가로서 가락국이라는 소국을 형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가락국의 형성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한반도 남부 지역의 다른 소국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수로집단은 석판묘를 축조하던 고조선계통으로 위만조선시대에 이주하였고 허황옥집단은 토광묘 축조집단으로 낙랑군 설치 이후에 등장한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가락국을 포함한 6가야 소국의 건국시기는 사로국과 마찬가지로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말경이었다고 짐작이 간다. 6가야 소국들은 언어를 공유하였고 유사한 사회·정치제도를 가졌으며 비슷한 수준의 농업과 교역활동을 하였다고 헤아려진다. 가락국에는 왕의 거처인 궁실 등이 있는 京都가 만들어졌고 경도를 중심으로 정치중심구역이 형성되었다. 가락국에는 9촌을 통합한 소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부조직과 9촌을 통치하기 위한 지방통치조직이 편성되었다. 9촌은 지방통치를 위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수로집단과 허황옥집단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배세력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신분층 밑에는 9촌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촌락의 지배세력들이 그 밑의 신분층을 형성하였다. 가락국에는 소국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3단계의 통치조직이 편성되었다. 가락국은 수로집단을 비롯한 이주민집단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실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가야의 소국들은 낙랑군과의 원거리교역을 위하여 하나의 교역망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소국연맹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가야지역 소국들의 지배자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들을 낙랑군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였다. 다호리유적에서 발굴되고 있는 전한대의 유물들은 좋은 예가 된다. 기원전 1세기에는 주로 낙랑에 온 중국의 內郡賈人

들이 배를 타고 왕래하며 그와 같은 교역을 하였다. 그런데 가야의 소국들 중 가락국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쉽게 원거리교역의 창구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가락국은 가야의 소국들로 이루어진 소국연맹의 맹주국이 되었고 헤아려진다. 그런데 포상8국이 가락국을 공격한 것으로 미루어 낙동강 유역의 소국들 사이에는 또 다른 소국연맹이 존재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동 지역의 소국들 사이에는 원거리교역과 전쟁을 위한 소국연맹이 복수로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맹주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국연맹의 결속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락국 자체는 원거리교역의 창구로서 국력을 키워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사로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정치세력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2세기 전반까지는 가락국이 사로국보다 국력이 강하였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3세기에 이르면 가락국은 소국병합을 하여 커다란 나라로 성장한 신라와 비교하여 국력이 열세에 있었다. 그 결과 포상8국이 가락국을 공격할 때 신라에 원병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가야 지역의 소국들은 신라에 병합될 때까지 소국연맹을 형성하기는 하였으나 각 소국들은 병합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 것은 소국들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졌고 서로간의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한 소국이 일방적으로 강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